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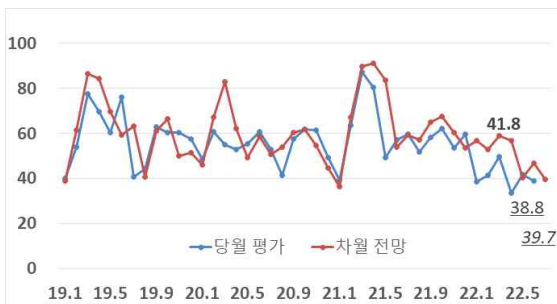
I. 2022년 6월 건설경기평가 및 7월 전망

■ 6월의 경기평가는 전년 대비 악화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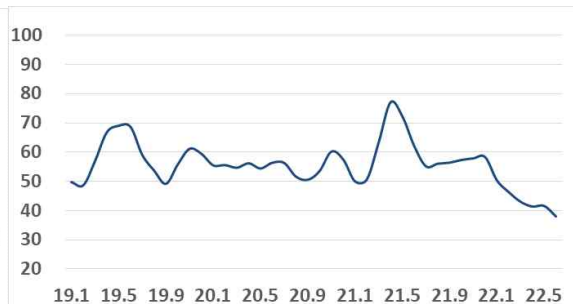
- 6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8.8로 전월(41.8)보다 소폭 하락함(-3.0p). 차월인 7월의 전망치(39.7)는 여전히 현황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응답업체들의 경영 애로사항도 여전히 전방위적인 것으로 집계됨. 환율, 노조, 원자재수급, 공사수주, 종사인력의 고령화 등 건설업황에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임.
- 수도권은 30.2(32.1→30.2)로 소폭 하락(-1.9p), 지방은 41.7(45.4→41.7)으로 악화됨(-3.7p).

〈표-1〉 2022년 6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7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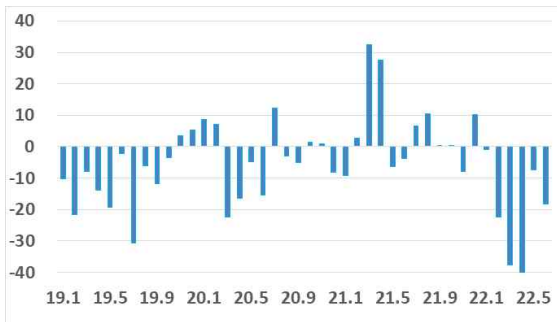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2년 6월 평가	38.8	57.0	30.2	41.7	24.2	43.2
2022년 7월 전망	39.7	59.4	47.2	37.2	45.5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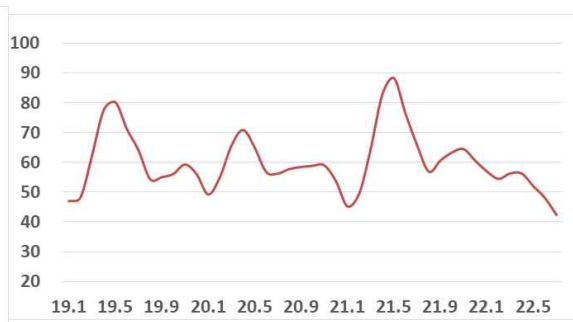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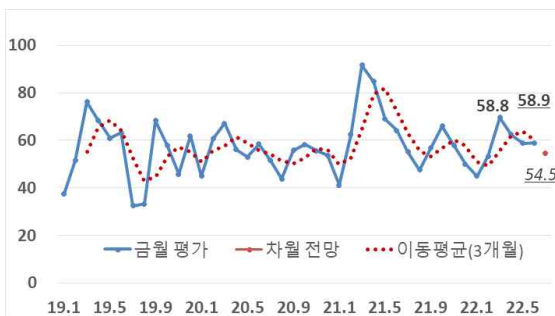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년 동월보다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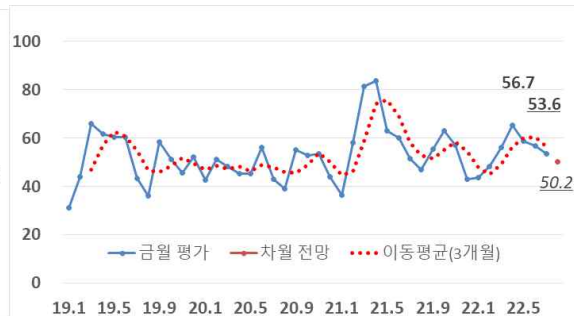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58.9(62.4→58.9)로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했으며(-3.5p), 하도급수주도 54.5(56.7→54.5)로 하락추세가 지속됨(-2.2p).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8.5→62.3)이 전월 대비 소폭 개선(+3.8p), 지방(63.8→57.7)에서는 하락폭이 가시적으로 나타남(-6.1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4.2→62.3)이 전월과 유사한 정도를 기록했으며(-1.9p), 지방(53.9→50.6)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짐(-3.3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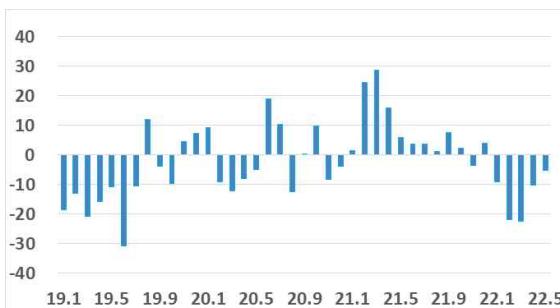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2년 6월 평가	58.9	64.2	62.3	57.7	60.6	67.6
	2022년 7월 전망	54.5	55.8	60.4	52.6	69.7	62.2
하도급 수주	2022년 6월 평가	53.6	60.0	62.3	50.6	63.6	58.1
	2022년 7월 전망	50.2	53.9	64.2	45.5	66.7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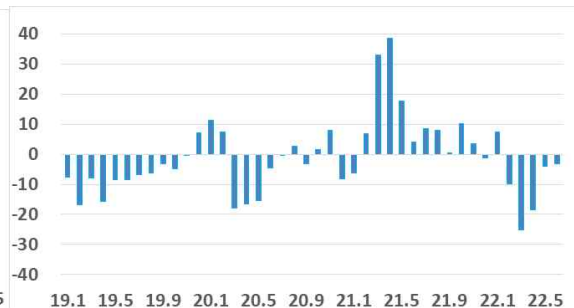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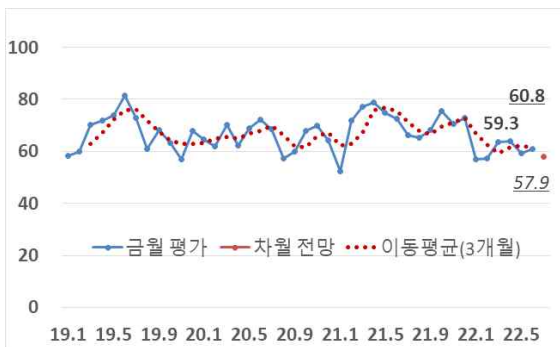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의 전년 동월보다 크게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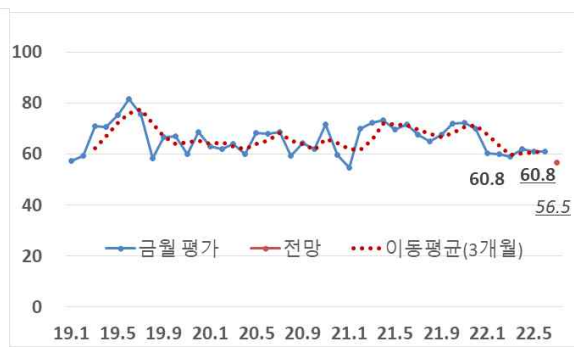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60.8(59.3→60.8)로 전월과 유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1.5p), 전년 동월(72.7)보다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50.9→54.7)은 전월의 개선세가 지속되었지만(+3.8p), 지방(62.4→62.8)은 전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0.4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60.8(60.8→60.8)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지만(0.0p), 여전히 전년 동월(71.5)보다는 크게 악화된 상황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54.7→60.4)에서는 개선세를 보였지만(+5.7p), 지방(63.1→60.9)은 전월에 이어 소폭의 하락을 나타냄(-2.2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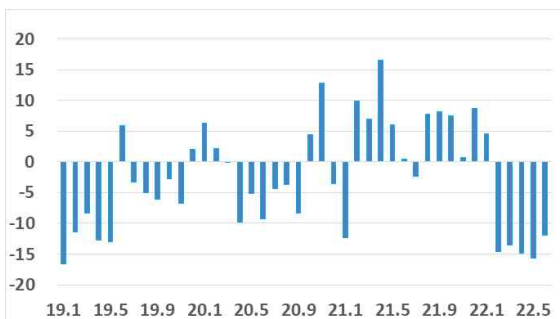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2년 6월 평가	60.8	72.7	54.7	62.8	54.5	60.8
	2022년 7월 전망	57.9	70.3	52.8	59.6	57.6	59.5
자금조달	2022년 6월 평가	60.8	71.5	60.4	60.9	57.6	58.1
	2022년 7월 전망	56.5	68.5	56.6	56.4	54.5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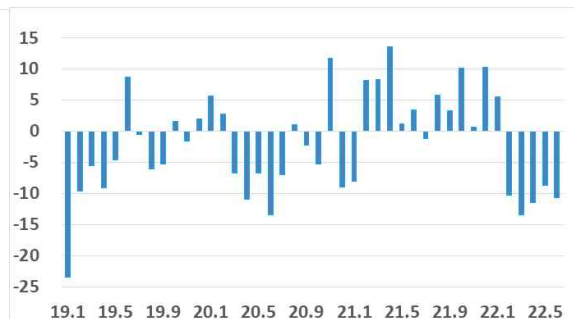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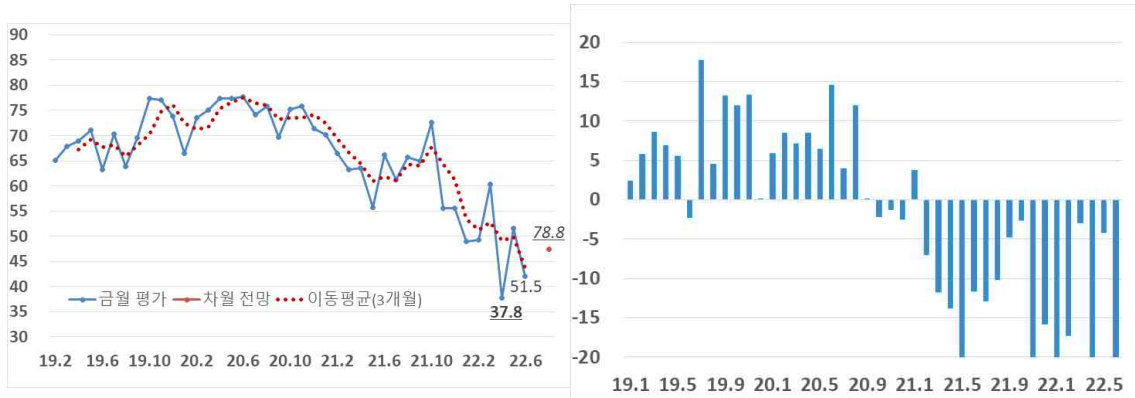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42.1(51.5→42.1)로 하락하면서 전월의 반등분을 상실했으며(-9.4p) 여전히 전년 동월(66.1)과는 큰 차이를 나타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45.3→39.6)에서도 하락세로(-5.7p), 지방(53.9→42.9)도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결과를 보였음(-11.0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도 57.4(62.9→57.4)로서 전월보다 악화되었으며(-5.5p), 역시 전년의 지수와는 큰 차이를 보였음.
 - 수도권(54.7→54.7)은 전월과 동일한 조사결과를 보였지만(0.0p), 지방(66.0→58.3)은 전월의 개선과 달리 소폭 하락으로 조사됨(-1.7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2년 6월 평가	42.1	66.1	39.6	42.9	39.4	45.9
	2022년 7월 전망	47.4	64.8	52.8	45.5	51.5	51.4
인력수급	2022년 6월 평가	57.4	72.1	54.7	58.3	51.5	60.8
	2022년 7월 전망	60.3	73.9	60.4	60.3	63.6	64.9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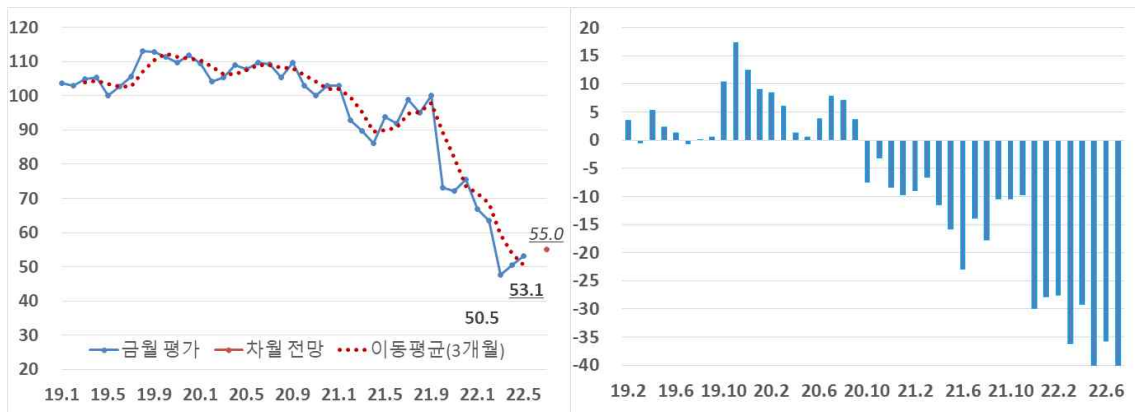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의 변동이 갖는 의미는 미미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24.9(19.6→24.9)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지만(+5.3p). 이보다 높은 차월(31.0)의 전망치가 갖는 의미는 크지 않음. 자재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설공사의 수주 이후에 투입되는 공사비 증가는 여전히 업계의 고민으로 지적되고 있음. 안타깝게도 최근 2년간 지속된 이같은 상황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찾기 어려움.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8.9→32.1)의 개선세가 컸으며(+13.2p), 지방(19.9→22.4)도 전월에 이어 개선세를 지속했지만(+2.5p)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53.1(50.5→53.1)로 전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지만(+2.6p), 이것도 자재비보다는 원활한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할 것임. 지금처럼 자재수급지수가 100이하로 크게 떨어진 것 자체가 이례적인 시기이기 때문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45.3→62.3)에서는 지수개선이 크게 나타났지만(+17.0p), 지방(52.5→50.0)은 전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2.5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2년 6월 평가	24.9	69.1	32.1	22.4	30.3	20.3
	2022년 7월 전망	31.1	68.5	37.7	28.8	39.4	29.7
자재수급	2022년 6월 평가	53.1	93.9	62.3	50.0	57.6	56.8
	2022년 7월 전망	55.0	86.1	62.3	52.6	60.6	63.5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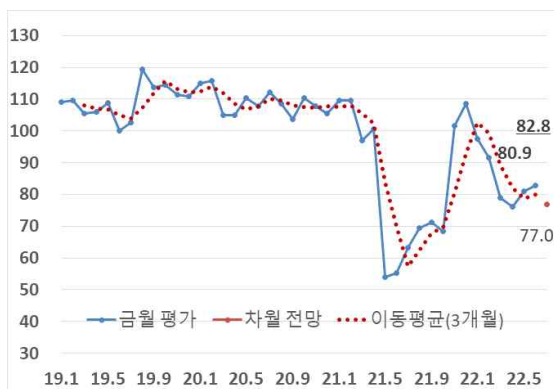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연이은 하락, 장비수급지수도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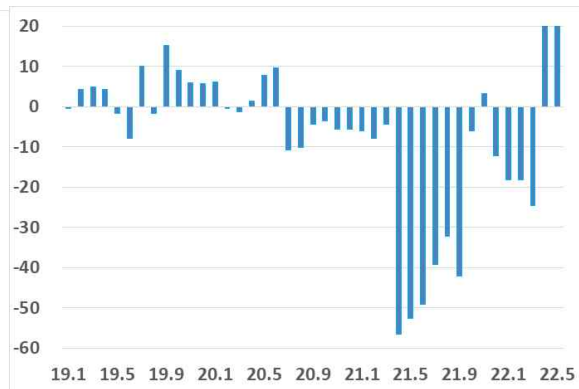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45.5(46.4→45.5)로 전월의 수준을 유지했으며(-0.9p), 차월(51.2)에도 큰 폭의 개선은 예상되지 못했음(+5.7p). 다만 건설장비의 임대료 문제는 유가같은 원가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동시에 업황의 개선에도 좌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47.2→45.3)은 전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1.9p), 지방(46.1→45.5)은 동일한 양상을 나타냄(-0.6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도 82.8(80.9→82.8)로 전월과의 차이가 미미했지만(+1.9p), 건설장비의 수급지수가 100이하로 유지된다는 것이 업계에 긍정적인 것은 아님.
 - 지역별로는 수도권(77.4→84.9)은 개선세를 보인 반면(+7.5p), 지방(82.3→82.1)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됨(-0.2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임대료 체감	2022년 6월 평가	45.5	29.1	45.3	45.5	45.5	43.2
	2022년 7월 전망	51.2	40.0	64.2	46.8	63.6	50.0
장비수급	2022년 6월 평가	82.8	55.2	84.9	82.1	78.8	87.8
	2022년 7월 전망	77.0	60.6	73.6	78.2	69.7	86.5



〈건설장비수급〉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2년 6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8.8	57.0	30.2	41.7	24.2	43.2	
	차월 전망	39.7	59.4	47.2	37.2	45.5	45.9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58.9	64.2	62.3	57.7	60.6	67.6
		차월 전망	54.5	55.8	60.4	52.6	69.7	62.2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53.6	60.0	62.3	50.6	63.6	58.1
		차월 전망	50.2	53.9	64.2	45.5	66.7	55.4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급	금월 평가	60.8	72.7	54.7	62.8	54.5	60.8
		차월 전망	57.9	70.3	52.8	59.6	57.6	59.5
	자금조달	금월 평가	60.8	71.5	60.4	60.9	57.6	58.1
		차월 전망	56.5	68.5	56.6	56.4	54.5	58.1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42.1	66.1	39.6	42.9	39.4	45.9
		차월 전망	47.4	64.8	52.8	45.5	51.5	51.4
	인력수급	금월 평가	57.4	72.1	54.7	58.3	51.5	60.8
		차월 전망	60.3	73.9	60.4	60.3	63.6	64.9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24.9	69.1	32.1	22.4	30.3	20.3
		차월 전망	31.1	68.5	37.7	28.8	39.4	29.7
	자재수급	금월 평가	53.1	93.9	62.3	50.0	57.6	56.8
		차월 전망	55.0	86.1	62.3	52.6	60.6	63.5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45.5	29.1	45.3	45.5	45.5	43.2
		차월 전망	51.2	40.0	64.2	46.8	63.6	50.0
	장비수급	금월 평가	82.8	55.2	84.9	82.1	78.8	87.8
		차월 전망	77.0	60.6	73.6	78.2	69.7	86.5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